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출범**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개소식

‘유비 쿼터스컴퓨팅사업단’ (단장 趙威德)은 4월 9일(금) 오전 11시 아주 대학교에서 과학기술부 차관(任祥奎) 등 과학기술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임 차관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사회는 고도화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이면서도 고도의 지능화를 요구하는 미래 전자사회의 구현을 위해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은 앞으로 10년(2003~2012) 동안 총사업비 2천10억 원(정부 1천40억 원, 민간 970억 원)을 지원받아 유비쿼터스컴퓨팅 세계기술선도 5위권 진입을 통한 인간/환경 친화적 그린 휴먼 소사이어티 실현에 필요한 국가적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문의 : 031)219-1720)

**차세대 성장동력, 산자부 주관 5개 분야 사업단 선정**

산업자원부에서는 디스플레이연구조합, 반도체연구조합, 전자 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이 산자부 주관

분야	사업단 운영기관	사업단장	연락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연구조합	건국대 김용배 교수	02-450-3417
차세대반도체	반도체연구조합	인천대 조중휘 교수	032-770-8443
차세대전지	전자부품연구원	서울대 오승모 교수	02-880-7074
미래형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부연 유영면 박사	041-559-3103
지능형 로봇	생산기술연구원	생기원 이호길 박사	031-400-3989

5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장들은 당해 분야 최고의 연구실적과 사업화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5개 부문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부문별 평가를 실시하고, 산·학·연의 최고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되었다. 앞으로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단장 책임 아래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인력양성, 기반조성, 국제협력 등의 과제도 종합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산자부 소관 5대 산업별 종합계획을 마련(4월말)하고 사업단장, 전문위원, PM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첨단 연구망 활성화 전문가 회의 개최**



정보통신부는 우리 나라 첨단연구망에 대한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활용한 응용사례 등을 발표하는 ‘제7회 Advanced Network Workshop’을 지난 4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었다. 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첨단망협회(ANF), (주)KT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대거 참석해 첨단연구망의 발전 방향과 이를 활용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응용연구사례가 발표됐다.

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첨단연구망 사용자들에게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의 가용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 나라 첨단연구망의 발전상과 미래 청사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교수 '역대 연봉' 시대 · · KAIST 1백명 넘어 평가는 **량보다 질 강조...획기적 인센티브도 제공**

교수도 역대 연봉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국내 이공계 대표대학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는 한, 두 명이 아니라 100여 명이 역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공계 홀대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KAIST는 11일 교수들의 2003년 총연간소득을 집계한 결과 역대 연봉 교수가 10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한 자릿수, 2002년 29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KAIST의 각종 개혁에서 비롯됐다. 평가제도의 개혁, 연구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획기적 메리트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우수·준최우수·우수 등 3등급으로 나눠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1천300만 원 상당의 최우수 인센티브는 30여 명의 교수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연봉지급의 차등을 두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홍창선 KAIST 총장은 "이공계 기피 문제는 과학자가 스스로 대우받을 때 해결될 수 있다"며 "대우가 나아지고, 창의적 연구의 틀이 자리잡으며 세계적인 과학 성과가 가까운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수의 수입은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으로 밝혀지지않는 수입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대덕넷)

## "한의학연구, 한방산업단지 핵심으로 육성" - 김화중 보건부 장관 밝혀 ... 9일 준공식 개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준공식에서 "정부는 전국의 한방산업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원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나라 90개 군의 기후와 토양은 세계 최고의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500개 이상의 1등급 한방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원단지센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내 한방상품을 전세계로 유통시키기 위해 세계 권역별 유통단지를 마련할 것"이며 "이와 함께 세계가 상품의 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상품등급제, 인정제 등의 한방정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학연구원의 새 청사는 1만5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문의 : 042-861-1994)

## 이덕환 서강대 교수 제5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崔永煥)은 2004년 제5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의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영상/오디오 부문에는 고희일(高熙一, 49세) 한국방송공사(KBS) 교양국 제작부주관, 신문/잡지부문에서는 이덕환(李德煥, 50세)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도서부문에서는 김연수(金漣洙, 43세) 문화일보 사진부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신문/잡지 부문에서의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월간 「과학과 기술」, 조선일보 '과학칼럼'과 '일사일언', 한겨레신문의 '좌충우돌 분자이야기' 등 주요 일간지와 과학신문 등에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꾸준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균형잡힌 과학적 시각으로 시사적인 사안을 다뤄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장관상 및 트로피와 부상으로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㉓

정리\_이재성 기자 jslee@kofst.or.kr